

제16호 프라임산업(주) 김태현 과장



나의 작은 실천으로 안전을 꽃피우자.

영화를 보거나 쇼핑을 하러 자주 찾는 곳이 있다. 서울 구의동의 테크노마트와 명동의 이바타쇼핑몰이 바로 그곳이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 우뚝 솟은 이 건물들과 운명을 같이 한 사람을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크로앙스 신축공사 현장에서 만나 보았다.

■ 안전의 실천은 작은 것에서부터

프라임산업(주)는 1988년 설립된 종합 디벨로핑 회사로 서울 구의동의 테크노마트, 서울시 건축지도과의 리모델링 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는 명동 이바타쇼핑몰 등을 건축한 새로움에 도전하는 젊고 패기 있는 회사이다.

대학교에서 안전공학을 전공한 김태현 과장은 졸업과 함께 프라임산업(주)에 입사하여 구의동 테크노마트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서의 길에 발을 들여 놓게 되었고 현재에는 광명 크로앙스 신축현장의 안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안전의 실천은 작은 것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김태현 과장은 그 시작을 개인보호구 착용이라고 말한다.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과 착용하지 않는 것은 백지 한장 차이이지만 착용하지 않는 것은 자기 자신의 학대임과 동시에 가족, 회사, 사회, 나아가서는 국가에 대한 기만행위이기 때문이다.


아직 우리내 현장에서의 의식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이에 김태현 과장은 근로자에게 현실적으로 접근하여 왜 안전을 지켜야 하는지 이유를 들고 산재발생시 가상시나리오를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동참을 이끌어 간다.

■ 안전은 위험한 전염병

안전은 SARS보다 더 위험한 전염병이라는 것이 김태현 과장의 생각이다.

근로자 한명이 지키면 모두 다 지키는 게 안전이지만 그중 한명만 지키지 않아도 모두 가지키지 않게 되는 것이 안전이기 때문이다.

이에 김태현 과장은 신규채용자 교육과 관리감독자 교육에 특히 심혈을 기울인다. 신규채용자는 현장에 대해 미숙하기에 자세하게 설명하여 항상 숙직하고 만일에 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한 현장 반장급 이상의 관리감독자들에게 건설안전 체험교육을 실시하여 실제로 체험하고 학습하여 그를 바탕으로 근로자들을 이끌 수 있게 하였다.

올해 학부모가 되었다는 김태현 과장의 환한 웃음처럼 우리내 현장안전에도 웃음꽃이 만발하기를 기원한다. 

〈성호연기자〉